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99 (2026): 80-117
https://doi.org/10.24333/jkots.2026.32.1.80

파라오의 완고함을 통해 바라본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소고

김정헌(한세대)

1. 들어가는 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독자들에게 난해한 문제로 다가왔다. 이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재앙의 책임 소재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나아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학적 연구가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 다수의 학자는 파라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책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본고는 '완고함'과 관련된 어휘와 구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파라오의 완고함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역동적으로 맞물려 작용한 결과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파라오는 자신이 결정하여 내린 행동과 그것

www.kci.go.kr

이 초래한 결과들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우선 본고는 파라오의 완고함의 책임 주체를 다룬 최근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누구에게 최종적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파라오의 '완고함'과 관련된 어휘들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어휘들의 구문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파라오의 완고함이 지닌 역동적이고 양면적인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파라오의 완고함과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파라오 본인에게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2. 파라오의 '완고함'에 대한 연구사

파라오의 완고함에 대해서 유대교와 고대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와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해석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파라오의 책임을 강조하고, 다소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1] 최근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파라오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상호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이런 식의 논쟁을 지향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재앙 이야기에 대해 자료비평적 분석을 하는 B. S. 차일즈(B. S. Chids)와 R. R. 윌슨(R. R. Wilson)은 파라오의 완고함을 자유의지

1 E. Kellenberger, *Die Verstockung Pharaos: Exegetische und ausleg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 Exodus* 1-15 (BWANT 171; Stuttgart: Kohlhammer, 2006), 283.

www.kci.go.kr

와 예정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을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 J, E, P 문서들의 문학적·신학적·편집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2] N. 슈팍(N. Shupak)은 '완고함'과 관련된 어휘들과 "마음"(לֵב/레브)을 연관 지어, 이집트 자료와 비교한다. 그는 이 어휘들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 신성(神性)과 관련하여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성서에서는 그 의미가 반전되어 인간의 불순종을 폭로하는 신학적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3] 이처럼 파라오의 '완고함'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자료비평, 문화-역사 배경, 고전적 신정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파라오의 완고함과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므로, 본고는 이에 초점을 맞춰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1) 하나님이나 파라오 중 한쪽을 옹호하는 연구들

사실, 파라오의 완고함과 관련된 연구들은 하나님을 옹호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많다. D. M. 건(D. M. Gunn)은 하나님의 주권을 파라오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에 의해 제한되고,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에 의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에게 종속되며, 재앙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주장한다.[4] G. K. 빌(G. K. Beale)도 하나님의 주권을

2 B. S. Childs, *The Book of Exod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4), 170-175; R. R. Wilson,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CBQ* 41.1 (1979), 35-36.

3 N. Shupak, "ḤZQ, KBD, QŠH LĒB,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in Exodus 4:1-15:21 — Seen Negatively in the Bible but Favorably in Egyptian Sources," G. N. Knoppers, A. Hirsch(ed.), *Egypt*, *Israel*, *and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Leiden: Brill, 2004), 398, 402.

www.kci.go.kr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무겁게(כבד/카베드) 한 것도 야웨이고(출 5:9), 파라오의 마음을 무겁게(כבד/카베드) 한 것도 야웨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야웨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출 14:4, 17. 18).[5] N. M. 사르나(N. M. Sarna)는 개인의 지적 · 도덕적 · 영적 삶의 자리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개인의 오만한 도덕적 타락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완고함과 그로 인한 재앙은 파라오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한다.[6] R. B. 치즈홀름(R. B. Chisholm)도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파라오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준을 거부한 데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파라오의 회개 시도조차 하나님에 의해 모두 중단되었다고 본다.[7] P. 질베르(P. Gilbert)는 חזק(하자크)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강화하고 굳건히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야웨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강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8] 그러므로 그는 파라오의 자유의지는 침해당하지 않았으며, 파라오는 스스로 야웨를 거부함으로써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고 주장한다.[9] D. G. C. 콕스(D. G. C. Cox)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웨에게 호의적이고 순종적이었던 이방 왕들의

---

4 D. M. Gunn,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Plot, Character and Theology in Exodus 1-14," in *Art and Meaning: Rhetoric in Biblical Literature*, ed. D. J. A. Clines, D. M. Gunn, A. J. Hauser, (Sheffield: JSOT Press, 1982), 88-90.

5 G. K. Beale,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 of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in Exodus 4-14 and Romans 9," *Trinity Journal* 5 NS (1984), 149.

6 N. M. Sarna, *Exodus* (JPS; Philadelphia/New York/Jerusalem: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23.

7 R. B. Chisholm, "Divine Hardening in the Old Testament," *Bibliotheca Sacra* 153 (1996), 428-29.

8 P. Gilbert, "Human Free Will and Divine Determinism; Pharaoh, a Case Study," *Direction* 30.1 (2001), 80-81.

9 윗글, 85-87.

www.kci.go.kr

선례(과거의 파라오들도 포함)를 고려하고, 이집트의 종교적·도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파라오는 실패한 왕이라고 설명한다.[10] 그러므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은, 파라오의 거부에 대한 적법한 사법적 조치라고 주장한다.[11] J. 그로스만(J. Grossman)은 파라오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박 재앙에서 마무리되는 처음의 일곱 개의 재앙은 하나님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후의 세 개의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여 그를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2] C. 도멘(C. Dohmen)은 파라오가 야웨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야웨에게 맞설 수 있었던 저항력은 야웨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13]

반면에 파라오의 완고함에 대해 파라오를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는 주장은 극히 적다. E. 켈렌베르거(E. Kellenberger)는 출애굽기의 재앙 이야기는 파라오의 책임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와 상관없으며, 청중들에게 야웨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14] 그리고 그는 파라오의 완고함에 대해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파라오는 면책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15]

---

10 D. G. C. Cox,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in Its Literary and Cultural Contexts," *Bibliotheca sacra* 163 (2006), 301-307.

11 윗글, 308-311.

12 J. Grossman, "The Structural Paradigm of the Ten Plagues Narrative and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VT* 64 (2014), 588-610.

13 C. Dohmen, *Exodus* 1-18 (HThKAT; Freiburg: Verlag Herder, 2015), 238-39.

14 Kellenberger, 윗글, 178-80.

15 윗글, 283.

www.kci.go.kr

2) 야웨와 파라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연구들

하지만 최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파라오의 자유의지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테렌스 E. 프레다임(T. E. Fretheim)은 하나님과 파라오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하되, 파라오의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 제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파라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절(출 8:2, 21; 9:2 등)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16] W. H. C. 프롭(W. H. C. Propp)은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개입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이 운명적 형벌을 받도록 개입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정의롭지만 반드시 공평한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17] G. 피셔/D. 마르클(G. Fischer/D. Markl)은 처음에는 파라오가 그의 마음을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설명함으로써, 파라오의 완고함을 과정적 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파라오의 자유로운 행동을 없애거나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의에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8] M. 맥아피(M. McAffee)는 파라오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시간적·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본다. 그는 재앙의 전반부에서는 파라오의 자유의지에 책임이 있고, 후반부에서는 야웨가 파라오의 완고함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19] 빅터 P. 해밀

16 테렌스 E. 프레다임, 「출애굽기」 (강성열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63-68. 원제는 T.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17 W. H. C. Propp, *Exodus* 1-18 (AB;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8), 353-54.

18 G. Fischer/D. Markl, *Das Buch Exodus* (NSKA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9), 73-75.

19 M. McAffee, "The Heart of Pharaoh in Exodus 4-15,"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0.3 (2010), 341-52.

www.kci.go.kr

턴(V. P. Hamilton)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성서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도, 파라오에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들 또한 동등하게 존재했었다고 주장한다.[20] C. M. 매기니스(C. M. McGinnis)는 기독교와 유대교 전통의 해석사 연구를 통해 두 관점을 함께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기독교와 유대교 전통이 방식은 달라도 본문의 이중적 관점, 즉 하나님의 완고케 하심과 파라오가 스스로 완고해짐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21] C. L. 램지(C. L. Ramsey)는 '중간지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중간지식'이란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개념이다.[22] 그는 하나님이 '중간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파라오의 자유의지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를 완고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23] 차준희는 피셔/마르클의 주장을 따르며 하나님의 주권과 파라오의 자유의지가 함께 상호작용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파라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인내를 거부한 파라오에게 조금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24]

---

20 빅터 P. 해밀턴, 「출애굽기」 (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17[2011]), 296-303. 원제는 V. P. Hamilton, *Exodu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1).

21 C. M. McGinnis,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in Christian and Jewish Interpretation,"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6 (2012), 58-64.

22 C. L. Ramsey, "The Pharaoh Initiative: God's Middle Knowledge in Action through a Pauline Perspective," *JETS* 62.4 (2019), 749-751.

23 윗글, 757-58.

24 차준희, 「구약이 이상해요: 오경 난제 해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92-99.

www.kci.go.kr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라오의 완고함과 관련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론은 여전히 다양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파라오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파라오의 자유의지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완고함'과 관련된 어휘와 구문 구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논의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먼저 '완고함'과 관련된 어휘들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 '완고함'과 관련된 어휘 분석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완고함을 표현하는 어휘는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 קשׁה(카샤) 세 개이다. 이 세 어근은 총 20회 등장하며, 칼(qal)형태, 피엘(piel)형태, 히필(hiphil)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동사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25]

חזק(하자크) 칼형 – 7:13, 22; 8:15; 9:35 (총 4회)
חזק(하자크) 피엘형 – 4:21; 9:12; 10:20, 27; 11:10; 14:4, 8, 17 (총 8회)
כבד(카베드) 칼형 – 7:14[26]; 9:7 (총 2회)
כבד(카베드) 히필형 – 8:11, 28; 9:34; 10:1 (총 4회)
קשׁה(카샤) 히필형 – 7:3; 13:15 (총 2회)

25 Dohmen, 윗글, 237.

26 문법에 따라 형용사로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로 볼 것이다. cf. HALOT, 456.

www.kci.go.kr

그러나 우리말 성서(개역개정)는 이 어휘들을 '완악하다' 또는 '완강하다'로만 번역하고 있다. 이는 원문의 정확한 뉘앙스를 살리는 좋은 번역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완고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어휘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출애굽기 13장 15절을 제외하면 이 어근들은 항상 "마음"(לֵב/레브)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어휘들의 정확한 의미 파악은 "마음"(לֵב/레브)과 함께 나오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사전적 의미

(1) חזק(하자크)의 의미

חזק(하자크)의 기본적 의미는 "강하다/강해지다(be/become strong)"로서, 다른 모든 의미는 이로부터 파생된다.[27] '칼'형은 "견고하다, 강하다, 강해지다"라는 상태의(stative) 의미가 있으며, 힘의 상태나 문맥에 따라 힘이 증가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작위동사[28] 어간인 '피엘'형은 누군가나 무언가를 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29]

חזק(하자크)의 칼·피엘·형용사형이 인물과 연결될 때는 대체로 격려의 의미가 있으며(약 34건), 개인·집단의 우월성을 묘사하거나 비인칭 명사와 연결될 때도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가 나타난다(예를 들어, 왕권의 안정성, 건축물의 보강이나 증축, 야웨의 강한 칼 등). 하지만 적들의 강한 힘(민 13:31; 수 17:18 등)이나 암논의 성폭력(삼하 13:14) 등에서는 부

27 *TDOT*, 4:301.

28 작위 동사(factitive verb)란 '~을 ~으로 만들다'는 의미를 갖는 동사로서, 모종의 행동을 야기하는 행동에 주목하는 동사를 가리킨다.

29 McAffee, 윗글, 333-34.

www.kci.go.kr

정적인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30] 한편, 피엘형은 왕국과 그 왕을 강하게 하는 것(대하 11:17)과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사 22:21)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31]

חזק(하자크)의 칼 · 피엘 · 형용사형은 신체 부위와도 함께 나타난다. "손(들)"과 함께 나타날 때는 대부분 격려나 구원, 야웨의 능력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악인의 손도 강해질 수 있다(삿 9:24; 렘 23:14; 겔 13:22 등). "얼굴이나 이마"와 함께 사용될 경우, 백성의 완고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렘 5:3; 겔 2:4; 3:7), 반대로 예언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겔 3:8-9).[32] 이처럼 חזק(하자크)의 칼 · 피엘 · 형용사형은 일부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주된 관심은 חזק(하자크)의 칼 · 피엘 · 형용사형이 "마음"(לֵב/레브)과 함께 사용될 때의 의미이다. חזק(하자크)가 "마음"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출애굽기 4-14장의 재앙 관련 본문들이다(수 11:20; 겔 2:4에서도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BDB, HALOT, DCH 사전들은 חזק(하자크)가 출애굽기의 재앙 관련 본문들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 '칼'형은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 센 상태를 의미하며, '피엘'형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것으로 본다.[33] TDOT도 '마음의 완고함(Hardness of Heart)'과 관련될 때는 이 어근에 긍정적 의미가 없으며, '칼'형은 '굳은 상태', '피엘'형은 '굳게 하다'는 의

30 Kellenberger, 윗글, 34-35.

31 *TDOT*, 4:303.

32 Kellenberger, 윗글, 34-35.

33 BDB, 304[칼: (in bad sense) grow stout, rigid, hard, with idea of perversity, of Pharaoh's heart, 피엘: make rigid, hard, i.e. perverse, obstinate, harden (the heart of any one)]; HALOT, 303[칼: the heart is hardened(חָזַק לב), 피엘: to harden, make obstinate]; DCH, 3:184-86[칼: be hard(of Pharaoh's heart), 피엘: harden heart].

www.kci.go.kr

미가 있다고 설명한다.[34]

(2) כבד(카베드)의 의미

셈어 어근 *kbd*/*t*는 거의 모든 셈어에서 "무겁다(be heavy)"라는 의미, 비유적으로는 "중요하다(be important)"라는 의미로 나타난다(확장하면 "영예롭다"라는 의미도 나타난다).[35] '칼' 상태동사는 "무겁다, 부담스럽다, 존귀하다"의 의미가 있으며, '히필' 사역동사(causative)는 무언가를 무겁게 만든다는 문자적 의미 외에, "영광스럽게 하다"는 비유적 의미가 있다.[36]

כבד(카베드)는 기본적으로 멍에의 무게(왕상 12:4), 재판의 부담(출 18:8), 시내산 신현현 때의 구름(출 19:16), 압살롬의 머리털(삼하 14:26), 욥의 고난(욥 6:3) 등 양적·질적 무게와 관련하여 구분 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창 13:2),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온 가축들(출 12:38), 스바 여왕의 수행단의 규모(왕상 10:2) 등에서는 많은 수량을 의미한다. 또한 야웨의 손은 블레셋(삼상 5:6, 11)과 기도하는 자(시 32:4)에게 무겁게 임하기도 하고,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삼하 13:25). 이처럼 כבד(카베드)의 '무거움'의 의미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37]

한편, כבד(카베드)가 신체 부위와 함께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팔"과 함께 나올 때는 아말렉과의 전투 중 중보하던 모세의 팔이 무거워졌다고 말하고(출 17:12, 형용사), "눈"과 함께 나올 때는 야곱이 나이 먹어 눈이 무거워졌다고 말한다(창 48:10, 칼). 이 두 경우는 위에서

34 *TDOT*, 4:309.

35 *TDOT*, 7:13-14.

36 McAffee, 윗글, 337-38.

37 Kellenberger, 윗글, 39.

www.kci.go.kr

살펴본 כבד(카베드)의 기본적 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모세가 자신의 "입"과 "혀"가 '무겁다'고 말하는 경우(출 4:10, 형용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귀"를 '막는' 경우(사 6:10, 히필; 슥 7:11, 히필), 야웨의 "귀"가 '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사 59:1, 칼)는 כבד(카베드)의 일반적인 의미와 조금 다르다. 켈렌베르거는 이 본문들에서 כבד(카베드)는 사명, 예언의 무게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38]

"마음"(לֵב/레브)은 כבד(카베드)의 칼·히필형과 함께 출애굽기의 재앙 관련 본문들에서만 등장한다(출 7:14; 8:11, 28; 9:7, 34; 10:1). 여기서도 사전들은 כבד(카베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39] TDOT 역시 '완강함(Stubbornness)' 항목에서 כבד(카베드)의 칼형은 파라오의 '완고한 상태', 히필형은 파라오의 '완고한 반응'이나 야웨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하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40]

(3) קשׁה(카샤)의 의미

קשׁה(카샤)의 기본적 의미는 "굳다/딱딱하다, 가혹하다, 잔혹하다(be hard, harsh, cruel)"이다. 이런 의미가 구약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며, 비유적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קשׁה(카샤)는 타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완고한'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나발(삼상 25:3), 스루야의 아들들(삼하 3:39), 이스라엘 백성들(신 10:16; 대하 30:8; 겔 2:4), 시드기야(대하 36:13)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사물·대상의 '굳은(hard)' 의미와 관련

38 윗글, 40-41.

39 BDB, 457-58[칼: hard, insensible, 히필: make heavy, dull, unresponsive, 형용사: hard]; HALOT, 303[칼: be heavy, dull, 히필: to make dull, make unresponsive, 형용사: dull, unresponsive]; DCH, 4:350-52[칼: be heavy, 히필: make heavy, deal heavily with, make unresponsive, harden, 형용사: obstinate].

40 *TDOT*, 7:20-21.

www.kci.go.kr

하여서는 단단한 야웨의 칼(사 27:1), 격렬한 동풍(출 14:21; 사 27:8), 유다 사람들의 강한 말(言, 삼상 5:7), 어려운 재판 사건(출 18:26), 어려운 상황(신 15:18), 고된 강제 노동(출 1:14; 6:9; 신 26:6; 왕상 12:4) 등에서 나타난다.[41]

קָשָׁה(카샤)가 "마음"(לֵב/레브)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출애굽기 7장 3절 외에도 세 개의 다른 용례가 있다(겔 3:7; 시 95:8; 잠 28:14). 이 세 개의 용례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사람(특히 백성)의 완고함과 관련하여서는 보통 "목(עֹרֶף/오레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출 32:9; 33:3, 5; 34:9; 신 9:6, 13; 왕하 17:14; 렘 7:26; 17:23; 19:15; 느 9:16-17, 29 등). 출애굽기 7장 3절에서처럼 야웨가 사람을 완고하게 하는 경우는 신명기 2장 30절에서 한 번 더 발견된다. 신명기 2장 30절에서 야웨는 시혼의 "영"(רוּחַ/루아흐)을 완고하게 하는데 이는 출애굽기 7장 3절과 같은 의미이다.[42]

그러므로 히브리 성서 전체에서 קָשָׁה(카샤)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한 태도, 사람이나 사물의 성향·성격 등과 관련하여 모두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3절, 13장 15절의 קָשָׁה(카샤)에 대해서 사전들[43]과 TDOT[44] 역시 오직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소결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חָזַק(하자크)는 긍정적 의미

41 *TDOT*, 13:189-92.

42 *TDOT*, 13:192-93.

43 BDB, 904[히필: make hard, stiff, stubborn(7:3), make difficulty(13:15)]; HALOT, 1152[히필: to harden(7:3), make difficulty(13:15)]; DCH, 7:334[히필: make hard, stiff, stubborn(7:3), make a difficulty(13:15)].

44 *TDOT*, 13:192-93.

www.kci.go.kr

를 가지고 있고, כבד(카베드)는 긍정적·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קשה(카샤)만이 전체 용례에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세 어근이 출애굽기의 재앙 관련 본문에서 "마음"(לֵב/레브)과 함께 등장하면 모두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성서, 주석들의 해석 경향

성서의 여러 역본들도 출애굽기의 재앙 관련 본문에서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 קשה(카샤)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세 어휘가 모두 등장하는 출애굽기 7장에서 3절(카샤), 13절(하자크), 14절(카베드)의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애굽기 7:3(카샤)	출애굽기 7:13(하자크)	출애굽기 7:14(카베드)
개역개정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여	완강하여
새번역	고집을 부리게 하여	고집을 부리고	고집이 세서
공동번역	억지를 부리게 하여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버리지 않고
ESV	harden	was hardened	is hardened
NASB	harden	was hardened	is stubborn
NIV	harden	became hard	is unyielding
NKJV	harden	grew hard	is hard
NRSV	harden	was hardened	is hardened

이러한 경향은 주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출애굽기 7장의 3절(카샤), 13절(하자크), 14절(카베드)에 관한 주석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석들이 세 어근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

www.kci.go.kr

다.[45] 주석들은 이 어휘들에 대하여 성경 역본들보다는 기본적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미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3) 새로운 해석적 흐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 קשה(카샤)에 대한 해석적 전통은 출애굽기의 재앙 본문에서 "마음"(לֵב/레브)과 함께 나오면, 본래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가장 오래된 성서 번역들에서조차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부정적인 번역 전통이 해석사 전체를 지배해 왔음을 보여준다.[46]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수의 다른 목소리는 존재해 왔다. 켈렌베르거는 루터가 출애굽기 설교에서 바로의 완고함을 역설적 표현으로써 하나님의 '격려'로 이해했다고 지적한다.[47] 그리고

---

45 마틴 노트, 「출애굽기」 (번역실 옮김),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68, 72, 80-81. 원제는 M.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Das Alte Testament Deutch, Teilban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존 더햄, 「출애굽기」 (손석태/채천석 옮김),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0), 172, 180, 185. 원제는 John I. Durham, *Exodus* (WBC; Texas: Word Books Pub., 1987); 프레다임, 윗글, 166, 188, 190; N. M. Sarna, 윗글, 23, 36, 38; 차준희, 「출애굽기 다시 보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9[2004]), 73-75; D. K. Stuart, *Exodus* (NAC; Nashville: Holman Reference, 2006), 179, 210, 213, 216; T. B. Dozeman, *Commentary on Exodus* (ECC; Grand Rapids/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160, 175, 210, 213, 216; 성서와함께 편집부(엮음), 「어서 가거라: 성서가족을 위한 탈출기 해설서(개정판)」 (서울: 성서와함께, 2010), 118, 139, 144; 해밀턴, 윗글, 208, 212, 215, 221, 222, 226; R. Albertz, *Exodus*, *Band* 1: *Ex* 1-18 (ZBK;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2), 118, 133, 136, 143; W. Johnstone, *Exodus* 1-19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14), 156, 159, 172; 김재구, 「출애굽기 로드맵 I: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거듭나는 탈바꿈」 (서울: 홍림, 2019), 218, 253, 255.

46 Kellenberger, 윗글, 32-33.

47 윗글, 33. 그러나 루터의 출애굽기 설교 원문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켈렌베르거는 뢰러(Rörer)의 설교 요지 기록과 이에 대한 아우리파버(Aurifaber)의 편집본에 의지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ellenberger, 윗글, 232-38을 참조하라.

www.kci.go.kr

로핀크(N. Lohfink)는 חזק(하자크) 피엘형과 קשׁה(카샤) 히필형을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성전(holy war) 전통적 배경에서 파라오의 투지를 강화했다는 의미로 이해했으며,[48] 이런 맥락을 윌슨이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P 문서에 적용하였다.[49] 프롭은 세 어휘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50] 질베르(P. Gilbert)와 마이어스(C. Meyers)는 חזק(하자크)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51] 이처럼 기존의 해석적 전통에 반하는 소수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으나, 이들의 논거는 부분적이거나 미약하여 큰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켈렌베르거(E. Kellenberger)의 2006년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단어의 의미에 담긴 감정적 함축과 관련된 뢰슬러(G. Rössler)와 콜러(W. Koller)의 연구를 기반으로, 파라오 마음의 완고함과 관련된 단어의 번역 전통이 감정적 반응, 보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함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52]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쿰란, 집회서 등에서 기본적으로 חזק(하자크)는 "강하다, 강해지다"(칼), "강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피엘)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며, כבד(카베드)는 인간이 자기 마음에 무게, 권위를 부여하는 긍정적·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지닌 양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그는 출애굽기의 재앙 관련 본문에서만 חזק(하자

48 N. Lohfink, "Die Ursünden in der priesterlichen Geschichtserzählung," *Die Zeit Jesu* (1970), 44-45.

49 Wilson, 윗글, 33-34.

50 Propp, 윗글, 282, 286, 323.

51 Gilbert, 윗글, 80-81; C. Meyers, *Exodus* (N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70.

52 뢰슬러와 콜러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G. Rössler, *Konnotationen: Untersuchungen zum Problem der Mit-und Nebenbedeutung* (Wiesbaden: Franz Steiner, 1979), 88-93; W.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Wiesbaden: Quelle & Meyer, 51995), 246.

www.kci.go.kr

크)와 כבד(카베드)를 부정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본래의 의미에 따라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קשה(카샤)는 전체적인 용례에서 부정적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 관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53]

이후 피셔/마르클, H. 우츠슈나이더/W. 오스발트(H. Utzschneider/W. Oswald), 도멘 등의 여러 주석가들이 켈렌베르거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들은 켈렌베르거를 직접 언급하면서, חזק(하자크)와 כבד(카베드)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했다.[54] 그리고 맥아피 역시 켈렌베르거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חזק(하자크)가 '완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하다, 강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כבד(카베드)는 단순히 '굳다(hard)'는 의미가 아니라 무게감, 둔감함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오직 קשה(카샤)만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55] 그는 켈렌베르거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세 단어의 의미에 대해 비슷한 설명을 한다.

4) 소결

그동안의 해석 전통은 출애굽기의 재앙 관련 본문에서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 קשה(카샤) 모두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켈렌베르거는 출애굽기의 재앙 관련 본문에서도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를 본래의 긍정적·중립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켈렌베르거의 주장은 이후 여러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본고 또한 그의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

53 Kellenberger, 윗글, 32-47.

54 Fischer/Markl, 윗글, 74; H. Utzschneider/W. Oswald, *Exodus* 1-15 (IECOT; Stuttgart: Kohlhammer, 2015[2013]), 192; C. Dohmen, 윗글, 237-39.

55 McAffee, 윗글, 333-40.

www.kci.go.kr

로 본고는 이후의 연구에서 세 어휘에 대한 켈렌베르거의 해석 노선을 따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חזק(하자크)는 '강하게 하다', כבד(카베드)는 '무겁게 하다', קשׁה(카샤)는 '완악케 하다'는 의미 및 뉘앙스로 이해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의미 채택은 내러티브로 하여금 역설적 성격을 띠게 한다. 야웨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고 무겁게 만든 것이 파라오로 하여금 야웨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어 결국 그를 몰락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의 긍정적·중립적 의미가 내러티브적으로 보았을 때는 파라오를 몰락으로 이끄는 역설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56]

4. '완고함'과 관련된 구문 분석

이상의 어휘 연구를 기반으로 이 장에서는 '완고함'과 관련된 구문을 분석한다. 표를 통해 '완고함'과 관련된 구문들의 구조와 역동성을 시각화함으로써, 야웨와 파라오 사이에서 완고함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분석의 틀을 결정하는 재앙 내러티브의 구조와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1) 재앙 내러티브의 구조 및 범위

(1) 구조

출애굽기 7-14장의 재앙의 수, 구조, 범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56 Kellenberger, 윗글, 46-47; Utzschneider/Oswald, 윗글, 192.

www.kci.go.kr

이해는 3×3 구조이다. 이것은 일찍이 유대 전통에 따른 이해로써, '피-개구리-이', '파리-가축-종기', '우박-메뚜기-흑암'의 세 그룹과 '장자의 죽음'으로 구성된 구조이다(3+3+3+1). 많은 학자들은 사전 경고 유무, 경고 시점, 지시어와 경고 장소, 집행자 등의 분명한 패턴을 볼 수 있는 전통적 3×3 구조[57]를 지지하고 해석의 기본 틀로 삼는다.[58] 이외에도 조금 변형된 구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3×3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59] 독특한 구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60]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오랫동안 그 설득력을 인정받아 온 전통적인 구조(3+3+3+1)를 따름으로써, 분석 틀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도모할 것이다.

(2) 범위

일반적으로 재앙 내러티브의 범위는 출애굽기 7장 8절-11장 10절,[61] 또는 7장 14절-11장 10절[62]로 여겨진다. 여기에 '장자의 죽음'

57 이와 관련하여 성서와함께 편집부, 윗글, 129에서 표로 잘 정리해 놓았다.

58 더햄, 윗글, 179; Sarna, 윗글, 38; 차준희, 윗글 (2009), 109-152; Fisher/Markl, 윗글, 100; 해밀턴, 윗글, 184; Albertz, 윗글, 138; Utzschneider/Oswalt, 윗글, 183-85; Dohmen, 윗글, 234-35.

59 예를 들어, 5×2 구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B. Jacob, *Das Buch Exodus* (Stuttgart: Calwer, 1997[1943]), 175ff; D. J. McCarthy, "Mose's Dealings with Pharaoh," *CBQ* 27 (1965), 336-347;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s Press, 1997), 93; G. A. Rendsburg, "The Literary Unity of the Exodus Narrative," J. K. Hoffmeier, A. R. Millard, G. A. Rendsburg(ed.), "*Did I Not Bring Israel Out of Egypt?*": *Biblical*, *Archaeological*, *and Egyptological Perspectives on the Exodus Narrative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6), 114-15. 또한 전통적인 3+3+3+1 구조를 확장하여 11개 혹은 12개의 기적 구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Stuart, 윗글, 186; 성서와함께 편집부, 윗글, 138-55; 김재구, 윗글, 231-47.

60 다음의 학자들을 참조하라. Dozeman, 윗글, 202-203; Johnstone, 윗글, 159-60, 169; J. Grossman, "The Structural Paradigm of the Ten Plagues Narrative and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VT* 64 (2014), 588-610; Dae-Jun Jeong,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the Serpent(Exod 7:8-13) in the Pagues Narrative," 「구약논단」 84 (2022), 217-225.

www.kci.go.kr

을 다루는 열 번째 재앙(출 12:29-36)은 포함되지 않는다. 열 번째 재앙은 앞의 재앙들과 분리되어 유월절, 무교절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출 12-13장)에 포함되어 있다.[63] 한편, 재앙 내러티브의 시작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출애굽기 7장 8-13절 때문이다. 이 부분은 파라오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재앙 내러티브의 서론으로 본다.[64] 본고는 이 부분을 재앙 내러티브의 서론으로 포함시키는 견해가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이를 따를 것이다(출 7:8-11:10).

2) '완고함' 관련 어휘들의 주어 및 구문 분석

본고는 지금까지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 קשׁה(카샤)의 정확한 의미와 재앙 내러티브의 구조·범위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1: 완고함 관련 어휘들의 주어 및 구문 분석). 이 표의 가로 항목은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 קשׁה(카샤)의 '주어'를 표시하며, 세로 항목은 이 어휘들이 사용된 20개의 구문을 '사건'과 연결하여 표시한다. 검은색 굵은 사각형은 재앙 내러티브(출 7:8-11:10)의 범위를 가리킨다.

'완고함'과 관련 어휘들의 주어는 '야웨', '파라오', '파라오의 마음'이다. '파라오의 마음'이 주어일 때는 חזק(하자크)와 כבד(카베드)가 칼

---

61 프레다임, 윗글, 175; Propp, 윗글, 286; Stuart, 윗글, 183; 성서와함께 편집부, 윗글, 138; Dohmen, 윗글, 230.

62 Jacob, 윗글, 173; Sarna, 윗글, 38; Fisher/Markl, 윗글, 104; Utzschneider/Oswalt, 윗글, 181; Johnstone, 윗글, 169.

63 Dohmen, 윗글, 272.

64 더햄, 윗글, 179; 프레다임, 윗글, 188; Fisher/Markl, 윗글, 100; 성서와함께 편집부, 윗글, 138; 해밀턴, 윗글, 217; Utzschneider/Oswalt, 윗글, 176; Dohmen, 윗글, 231; 김재구, 윗글, 249-50.

www.kci.go.kr

표 1. 완고함 관련 어휘들의 주어 및 구문 분석

주어 / 사건	야웨 (행위 주체)	파라오의 마음 (상태)	파라오 (행위 주체)
출 4:21 (완고함 예고1)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חזק, 피엘)		
출 7:3 (완고함 예고2)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קשׁה, 히필)		
출 7:13 (재앙의 서곡)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חזק, 칼)	
출 7:14 (재앙의 서곡)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כבד, 형용사)	
출 7:22 (재앙1)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חזק, 칼)	
출 8:15 (재앙2)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כבד, 히필)
출 8:19 (재앙3)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חזק, 칼)	
출 8:32 (재앙4)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כבד, 히필)
출 9:7 (재앙5)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כבד, 칼)	
출 9:12 (재앙6)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חזק, 피엘)		
출 9:34 (재앙7)			바로가 …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כבד, 히필)
출 9:35 (재앙7)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חזק, 칼)	
출 10:1 (재앙7)	내가 그의 마음과 … 완강하게 함은 (כבד, 히필)		

www.kci.go.kr

출 10:20 (재앙8)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חזק, 피엘)		
출 10:27 (재앙9)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חזק, 피엘)		
출 11:10 (재앙 1-9 회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חזק, 피엘)		
출 13:15 (재앙 10 회고)			바로가 완악하여 (קשׁה, 히필)
출 14:4 (홍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חזק, 피엘)		
출 14:8 (홍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חזק, 피엘)		
출 14:17 (홍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חזק, 피엘)		

* 참고: חזק 동사, כבד 동사, קשׁה 동사

상태동사(stative) 또는 형용사로 나타난다(피엘형, 히필형은 사용되지 않음). 이는 파라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파라오의 마음이 강하거나 무거운(둔감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65] 반면에, '야웨'와 '파라오'가 주어일 때는 '파라오의 마음'이 목적어가 된다(출 14:17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목적어).[66] 이때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 קשׁה(카샤)는 피엘형, 히필형으

65 *TDOT*, 4:309, 7:20-21; Childs, 윗글, 173-74; McAffee, 윗글, 334, 37.

66 출 13:15의 동사는 '파라오'가 주어로 나오지만 목적어가 없다. 이에 대해 *TDOT*는 출

www.kci.go.kr

로 등장하며, 주어(야웨, 파라오)가 목적어(파라오의 마음)에 영향을 가하여 특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67]

3) 재앙 내러티브에 대한 קשׁה(카샤)의 인클루지오(inclusio) 구조

파라오의 완고함과 관련하여 קשׁה(카샤)는 두 번만 나타난다(출 7:3; 13:15). 두 번 모두 '히필형'이고, 주어는 각각 '야웨'와 '파라오'이다. 그런데 표를 살펴보면 קשׁה(카샤)가 재앙 내러티브(출 7:8-11:10)를 밖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히필 어간은 개시적/진입적(ingressive) 의미, 즉 목적어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68] 그러므로 출애굽기 7장 3절의 קשׁה(카샤) 히필형은 파라오의 마음이 앞으로 완고한 상태가 되리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9] 이러한 קשׁה(카샤)에 대한 예고는 13장 15절에서 이루어진다. 7장 3절의 קשׁה(카샤) '미완료형'이 13장 15절에서는 '완료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קשׁה(카샤) 동사는 재앙 내러티브의 외부에서 인클루지오(inclusio)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קשׁה(카샤)는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와 달리 분명히 부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 내러티브에서 קשׁה(카샤) 동사가 '미완료형'과 '완료형'으로 두 번만 등장하는 것은 의도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구절로 확장하면, 출애굽기 7장 3-5절(서두 부분)과 13장 14-16절(종결 부분)이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15이 목적어가 생략된 구조로써, '마음', '목', '영' 가운데 하나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13:192).

67 *TDOT*, 4:309, 7:20-21, 13:190; McAffee, 윗글, 334, 338.

68 B. K. Waltke, M. P.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437[§27.2d].

69 McAffee, 윗글, 348.

www.kci.go.kr

첫째, קָשָׁה(카샤)는 7장 3절에서는 개시적 의미와 더불어, '미완료형'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 그리고 13장 15절에서는 '완료형'으로 등장하여 7장 3절의 예고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마소라 본문(MT) 7장 3절에서는 '파라오의 마음'이라는 목적어가 나타나지만, 13장 15절에서는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두 구문의 평행성과 관련하여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관련하여 TDOT는 13장 15절이 목적어가 생략된 구조로서, '마음', '목', '영' 가운데 하나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본다.[70] 프롭, 도멘 역시 קָשָׁה(카샤)의 목적어로서 '마음'(출 7:3 참조)이나 '목'(출 32:9; 33:5; 34:9 등 참조)이 목적어로 보충될 수 있다고 본다.[71] 이를 파라오의 완고함과 관련된 다른 19개의 구문과 함께 고려하면, 13장 15절의 קָשָׁה(카샤)는 '마음'(לֵב/레브)이 생략된 구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두 구문의 평행성을 보충해 준다.

둘째, 서두와 종결 부분에서 각각 두 번씩 나오는 '인도하다'(יצא/야짜) 동사 역시 인클루지오 구조를 지지한다. 야웨를 주어로 하는 יצא(야짜) 동사는 서두에서 히필형·'미완료' 동사로 두 번 등장하고(출 7:4, 5), 종결 부분에서는 히필형·'완료' 동사로 두 번 등장한다(출 13:14, 16). 이는 서두에서 예고된 야웨의 인도하심이 종결 부분에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서두의 7장 4절에서 말하는 "심판"(שְׁפָטִים/쉐파팀)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심판"(שְׁפָטִים) 모티프가 다시 등장하여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예고하기 때문이다.[72] 이러한 서두의 "심판" 모티

70 *TDOT*, 13:192.

71 Propp, 윗글, 427; Dohmen, 윗글, 285.

72 Dozeman, 윗글, 175; Dohmen, 윗글, 212. 또한 Johnstone, 윗글, 156도 참고하라.

www.kci.go.kr

프(출 7:4)는 종결 부분에서 성취된다: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출 13:15)

이처럼 קָשָׁה(카샤)를 중심으로 출애굽기 7장 3-5절[73]과 13장 14-16절은 재앙 내러티브의 외부에서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קָשָׁה(카샤)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완고함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4) '파라오의 신하들'과 관련된 구문 분석

일곱 번째 재앙(출 9:13-35)에서 여덟 번째 재앙(출 10:1-20)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매우 독특하다(표에서 작은 크기의 회색 사각형 참고). 세 개의 연속되는 구절에서, '파라오', '파라오의 마음', '야웨'의 세 주어가 차례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세 구절에서 이 주어들이 등장하는 부분만 사역하면 다음과 같다:

(출 9:34)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כָּבֵד/카베드).
(출 9:35) 그리하여 '파라오의 마음'이 강하게 되었다(חָזַק/하자크).
(출 10:1) '야웨'께서 말씀하셨다. "내가(אֲנִי/아니) 파라오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כָּבֵד/카베드)."

이 구절들에 따르면, '파라오'와 '야웨' 모두 '파라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파라오의 마음'이 강해진 것은 과연

73 출애굽기 7장 5절은 재앙들과 갈대 바다에서의 기적을 함께 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Propp, 윗글, 282-83; Johnstone, 윗글, 156.

www.kci.go.kr

누구로 인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피셔/마르클은 위의 세 구절을 사건의 진행, 즉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했다.

> 완고함은 세 가지 수준의 사건 진행으로 드러난다. 첫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과정이다("파라오"). 둘째, 내면의 더 깊은 층을 포함하는 과정으로써, 의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과정이다("마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한다. 그분의 행동에는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인간의 거부조차도 포함한다.[74]

피셔/마르클의 주장에 따르면, 위의 세 구절들은 파라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파라오가 먼저 자기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야웨가 개입하여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다.[75] 더구나 야웨는 자신이 파라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인칭 대명사 אֲנִי(아니)를 덧붙였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재앙(출 9:13-35)을 통해 파라오의 마음이 무거워진 데는 야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출 10:1).

마소라 본문의 구분에 따라 출애굽기 10장 1절이 여덟 번째 재앙(출 10:1-20)에 속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10장 1절의 כבד(카베드) 히필형은 '미완료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다. 그러므로 10장 1절은 앞으로 일어날 여덟 번째 재앙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곱 번째 재앙을 다루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앙 내러티브(7:8-11:10)에서 파라오의 완고함과 관련하여,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이 함

74 Fisher/Markl, 윗글, 74.

75 차준희는 피셔/마르클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일한 주장을 펼친다. 차준희, 윗글 (2021), 97-99.

www.kci.go.kr

께 등장하는 구절은 9장 34절과 10장 1절밖에 없다. 이는 두 구절이 마음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9장 25절을 중심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세 구절은 연결된 한 단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재앙 후반부와 관련하여 일관된 관점을 제공한다. 즉, 재앙 내러티브의 후반부(6~9번째 재앙)에서는 야웨가 일관되게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게 하거나 무겁게 했다.

5. '완고함'의 책임 소재 연구

이상의 어휘 및 구문 분석에 따르면, 재앙 내러티브(출 7:8-11:10)에서 제1~5재앙은 파라오 본인이, 제6~9재앙에서는 야웨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앙 내러티브의 서곡 부분(출 7:8-13)에서는 파라오의 마음이 강하고 무거운(혹은 둔감한) 상태에 있다는 언급이 두 번 반복된다(7:13, 14). 이는 파라오가 본래 강하고 무거운(혹은 둔감한) 마음의 소유자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지는 제1~5재앙에서는 파라오의 마음 상태에 대한 묘사(7:22; 8:19; 9:7)와 파라오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무겁게 하는 능동적 행위(8:15, 32)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타난다(표 참조). 이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파라오가 스스로 본인의 마음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재앙(출 9:8-12)부터는 야웨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인하게 하는 동인으로 등장한다. 이는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파라오의 완고함은 야웨와 파라오 사이에서 일어난 역동적 과정의 결과이자,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재앙 내러티브가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시대

www.kci.go.kr

독자들에게 야웨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의 완고함'은 어리석은 일임을 경고하고, 야웨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76] 그러므로 재앙 내러티브의 어휘·구문 구조는 야웨의 인내와 은혜를 강조하면서, 파라오의 완고함과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파라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קשׁה(카샤)의 인클루지오 구조

재앙이 있기 전, 야웨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겠다는 예고를 두 번 한다. 첫 번째 예고는 4장 21절(חזק〔하자크〕, 피엘형/'미완료')에서 일어나며, 이는 9장 12절(חזק〔하자크〕, 피엘형/'완료')에서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사용된 동사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 חזק(하자크)이며, 야웨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게 하겠다는 자신의 예고를 실현한다.

야웨의 두 번째 예고에 사용된 동사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קשׁה(카샤)이다. 야웨는 7장 3절에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קשׁה〔카샤〕, 히필형/'미완료') 하겠다고 선포한다. 즉, קשׁה(카샤)의 인클루지오 구조는 파라오를 완악하게 만들겠다는 야웨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선포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인클루지오 구조는 파라오가 완악하여졌기 때문에(קשׁה〔카샤〕, 히필형/'완료'), 애굽의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었다는 모세의 회고로 끝을 맺는다(출 13:15).

그렇다면 13장 15절에서 파라오가 완악해진 것(קשׁה/카샤)은 7장 3절에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만들겠다고 선포한 야웨의 의지가 빚어낸 결과일까? 내러티브의 의도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신명기 2장 30절

76 Wilson, 윗글, 35-36.〔윌슨은 P가 출애굽기 4-14장 이야기를 통해 자기 시대 독자들에게 야웨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한다고 설명한다.〕

www.kci.go.kr

에서 야웨는 시혼의 "영"(רוּחַ/루아흐)을 완악하게 만듦으로써(קשׁה〔카샤〕, 히필형/'완료'),[77] 자신이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재앙 내러티브(출 7:8-11:10)에서 야웨는 파라오의 마음에 קשׁה(카샤)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순간까지도 야웨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에 חזק(하자크)로만 영향을 미치고, קשׁה(카샤)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장 15절에는 다만 파라오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קשׁה/카샤)고 나올 뿐이다. 그러므로 13절 15절에서 파라오의 완악함은 본인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קשׁה(카샤)의 인클루지오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서두에서 야웨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קשׁה) 만들어서(출 7:3),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 심판(장자들의 죽음: 앞의 '4.3')을 참조하라)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출 7:4).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야웨(출 34:6)가 계속 기회를 주는 사이에 파라오는 마음이 강하고(חזק), 무거운(כבד) 상태를 지나, 스스로 완악한(קשׁה) 상태에 이르렀다(출 13:15).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파라오의 완악함이 장자들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교훈적으로 말한다(출 13:15). 그러므로 קשׁה(카샤)의 인클루지오 구조는 파라오의 완악함(קשׁה)과 그로 인한 장자들의 죽음이 파라오 본인의 책임이었음을 가리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77 *TDOT*, 13:193. 신명기 2장 30절은 출애굽기 7장 3절과 달리 "영"(רוּחַ/루아흐)이 나오지만, *TDOT*는 두 구문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www.kci.go.kr

2) 파라오와 대조되는 신하들의 자유의지

일곱 번째 재앙(출 9:13-35)과 여덟 번째 재앙(출 10:1-20)에 등장하는 '파라오의 신하들'의 사례도 파라오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두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마음'에 관한 책임 문제이다(출 9:34).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9장 34절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무겁게(כבד/카베드) 했다(9:34). 하지만 그 결과 마음이 강한(חזק/하자크) 상태에 이른 사람은 파라오뿐이었고, 파라오의 신하들은 마음이 강화되지 않았다(9:35). 이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압력을 가할지라도, 마음의 상태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행동'에 관한 책임 문제이다(출 10:1). 10장 1절에서는 야웨가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의 마음을 무겁게(כבד/카베드)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파라오의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로 데려와 그들의 말을 들어 주기를 요청한 반면에(10:7-8),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쫓아냈다(10:10-11).[78] 이는 야웨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79]

이처럼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의 마음에는 동일한 자극이 가해졌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

78 출 10:8-11에서 파라오가 양보를 했거나, 이스라엘의 장정들만 절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모세의 요구를 허락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Sarna, 윗글, 48; 장석정, "메뚜기 재앙(출 10:3-20) 이해,"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42-45.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10-11절에서 파라오가 모세의 요구를 조롱하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본다. 다음을 참고하라. 노트, 윗글, 98; Propp, 윗글, 337-38; Stuart, 윗글, 248; Dozeman, 윗글, 242; Fisher/Markl, 윗글, 120-21; Alberts, 윗글, 182-83; Johnstone, 윗글, 192-93.

79 Fisher/Markl, 윗글, 120. 프레다임, 윗글, 165도 참조하라.

www.kci.go.kr

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영향을 미치든,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든,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야웨가 제시한 조건절

야웨가 파라오에게 재앙을 경고할 때, 조건절과 함께 전하는 경우가 4번 있다(출 8:2, 21; 9:2; 10:4). 그러나 이때마다 파라오는 모두 거절했다. 야웨가 경고와 함께 조건절을 제시한 것은, 파라오가 자신의 결정에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파라오는 야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허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건절은 파라오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하게(חזק/하자크) 하거나 무겁게(כבד/카베드) 했을 때뿐만 아니라(출 7:22; 8:19, 32), 야웨가 파라오의 마음을 무겁게(כבד/카베드) 했을 때도 제시되었다(출 10:4).[80] 즉, 야웨는 파라오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출 10:1), 이때에도 파라오는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파라오의 신하들을 통해 증명된다. 야웨는 10장 1절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무겁게(כבד/카베드) 했다. 그후 모세와 아론이 10장 4절에서 조건절을 제시했을 때, 파라오의 신하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을 주장했고(출 10:7-8), 반대로 파라오는 모세를 쫓아냈다(출 10:10-11).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마음에 개입하는 순간에도, 자기 결정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라오의 완고함은 인간의 자유의

80 프레다임, 윗글, 167-68; 해밀턴, 윗글, 301-302.

www.kci.go.kr

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개입된 복합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파라오의 마음에 개입하신 것은 아니었다. 재앙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파라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하고(חזק/하자크) 무겁게(כבד/카베드) 하는 오랜 과정이 있었다(1~5재앙).[81]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자 '하나님은 직접'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고(חזק/하자크) 무겁게(כבד/카베드) 함으로써, 파라오와 이집트에 재앙을 더하셨다(6~9재앙). 하지만 파라오 신하들의 사례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절에서 볼 수 있듯이, 파라오는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제한되지 않았다.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는 재앙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그러나 קשׁה(카샤)의 인클루지오 구조는 마음이 완악해지면(קשׁה/카샤), 돌이킬 기회도 없음을 보여준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קשׁה/카샤),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한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10재앙: 장자들의 죽음)을 이집트에 내릴 예정이었기 때문이다(출 7:3-4).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바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고(חזק/하자크) 무겁게(כבד/카베드) 하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1~9재앙). 만약 파라오가 계속 완고함을 고집했다면, 하나님도 결국에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קשׁה/카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재앙 내러티브에서 파라오는 먼저 스스로 완악한(קשׁה/카샤) 상태에 떨어졌다. 강하고(חזק/하자크) 무거운(כבד/카베드) 마음을 넘어, 사납고 잔악하게(קשׁה/카샤) 된 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을 내려 "그 손의 권능으로"(출 13:3, 14, 16)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재앙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강조하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81 Albertz, 윗글, 133; Utzschneider/Oswalt, 윗글, 171.

www.kci.go.kr

심판들이 파라오의 완고함과 그가 내린 선택의 결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나가는 말

파라오의 완고함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와도 관련하여서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오랫동안 논쟁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파라오의 '완고함'과 관련된 어휘 연구와 구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자 했다. 파라오가 스스로 초래했든(1~5재앙), 야웨가 영향을 미쳤든(6~9재앙), 파라오의 마음이 강하고(חזק/하자크) 무거울(כבד/카베드) 때는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 파라오는 여전히 자기 '마음'과 '행동'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다. 파라오 신하들의 사례와 야웨가 제시한 조건절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קשׁה(카샤)의 인클루지오 구조는 마음이 완악해지면(קשׁה/카샤)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음을 보여준다. 야웨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심판(10재앙: 장자들의 죽음)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야웨가 아니라, 파라오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קשׁה/카샤) 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완고함과 그가 내린 결정들로 인해 초래된 재앙들은 파라오 본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재앙 내러티브와 관련된 קשׁה(카샤)의 인클루지오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קשׁה(카샤)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로만 영향을 미치고, קשׁה(카샤)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증명하였다. 그리고 파라오의

www.kci.go.kr

신하들이 '마음'과 '행동'의 두 단계에서 파라오와 대비된다는 사실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파라오의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파라오의 완고함에 관한 연구는 우흘리히(T. Uhlig)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디코(M. Diko)의 인지 이론 등을 통해 앞으로 더 발전되고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재구, 「출애굽기 로드맵 I: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거듭나는 탈바꿈」 (서울: 홍림, 2019).

마틴 노트, 「출애굽기」 (번역실 옮김),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원제는 Noth, M. *Das zweite Buch Mose: Exodus* (Das Alte Testament Deutch, Teilban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장석정, "메뚜기 재앙(출 10:3-20) 이해," 「구약논단」 44집 (2012), 35-57.

존 더햄, 「출애굽기」 (손석태/채천석 옮김),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0). 원제는 Durham, J. I., *Exodus* (WBC; Texas: Word Books Pub., 1987).

성서와함께 편집부(엮음), 「어서 가거라: 성서가족을 위한 탈출기 해설서(개정판)」 (서울: 성서와함께, 2010).

차준희, 「출애굽기 다시 보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9[2004]).

_____, 「구약이 이상해요: 오경 난제 해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테렌스 E. 프레다임, 「출애굽기」 (강성열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원제는 Fretheim, T. E.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빅터 P. 해밀턴, 「출애굽기」 (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17). 원제는 Hamilton, V. P. *Exodu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1).

Albertz, R., *Exodus*, *Band 1: Ex 1-18* (ZBK;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2).

Beale, G. K.,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 of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in Exodus 4-14 and Romans 9." *Trinity Journal* 5 NS (1984), 129-154.

Brown, F./Driver, S. R./Briggs, C. A., *Enhanced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www.kci.go.kr

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77).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s Press, 1997).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4[1974]).

Chisholm, R. B., "Divine Hardening in the Old Testament." *Bibliotheca Sacra* 153 (1996), 410-434.

Clines, 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Sheffield Phoenix Press, 1993-2011).

Cox, D. G. C.,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in Its Literary and Cultural Contexts." *Bibliotheca sacra* 163 (2006), 292-311.

Dozeman, T. B., *Commentary on Exodus* (ECC; Grand Rapids/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Dohmen, C., *Exodus 1-18* (HThKAT; Freiburg: Verlag Herder, 2015).

Dohmen, C./Stenmans, P., "כבד" *TDOT* 7:13-22.

Fischer, G./Markl, D., *Das Buch Exodus* (NSKA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9).

Gilbert, P., "Human Free Will and Divine Determinism; Pharaoh, a Case Study." *Direction* 30.1 (2001), 76-87.

Grossman, J., "The Structural Paradigm of the Ten Plagues Narrative and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VT* 64 (2014), 588-610.

Gunn, D. M.,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Plot, Character and Theology in Exodus 1-14." D. J. A. Clines, D. M. Gunn, A. J. Hauser(ed.), *Art and Meaning: Rhetoric in Biblical Literature* (Sheffield: JSOT Press, 1982), 72-96.

Hess, F., "חזק" *TDOT* 4:301-308.

Jacob, B., *Das Buch Exodus* (Stuttgart; Calwer, 1997[1943]).

Jeong, Dae-Jun,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the Serpent(Exod 7:8-13) in the Pagues Narrative."「구약논단」84 (2022), 203-236.

Johnstone, W., *Exodus 1-19*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14).

Kellenberger, *E., Die Verstockung Pharaos: Exegetische und ausleg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 Exodus 1-15* (BWANT 171; Stuttgart: Kohlhammer, 2006).

Koehler, L. (et al.),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J. Brill, 1994-2000).

www.kci.go.kr

Lohfink, N., "Die Ursünden in der priesterlichen Geschichtserzählung." Die Zeit *Jesu* (1970), 38-57.

McAffee, M., "The Heart of Pharaoh in Exodus 4-15."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0.3 (2010), 331-353.

McCarthy, D. J., "Mose's Dealings with Pharaoh." *CBQ* 27 (1965), 336-347.

McGinnis, C. M.,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in Christian and Jewish Interpretation."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6 (2012), 43-64.

Meyers, C., *Exodus* (N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ropp, W. H. C., *Exodus 1-18* (AB;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8).

Ramsey, C. L., "The Pharaoh Initiative: God's Middle Knowledge in Action through a Pauline Perspective." *JETS* 62.4 (2019), 749-758.

Rendsburg, G. A., "The Literary Unity of the Exodus Narrative." J. K. Hoffmeier, A. R. Millard, G. A. Rendsburg(ed.), "*Did I Not Bring Israel Out of Egypt?": Biblical, Archaeological, and Egyptological Perspectives on the Exodus Narrative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6), 113-32.

Sarna, N. M., *Exodus* (JPS; Philadelphia/New York/Jerusalem: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Shupak, N. "ḤZQ, KBD, QŠH LĒB,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in Exodus 4:1-15:21 — Seen Negatively in the Bible but Favorably in Egyptian Sources." G. N. Knoppers, A. Hirschin(ed.), *Egypt*, *Israel*, *and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Leiden: Brill, 2004), 389-403.

Stuart, D. K., Exodus (NAC; Nashville: Holman Reference, 2006).

Utzschneider, H./Oswald, W., *Exodus 1-15* (IECOT; Stuttgart: Kohlhammer, 2015[2013]).

Waltke, B. K./O'Connor, M. P.,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Wilson, R. R.,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CBQ* 41.1 (1979), 18-36.

Zipor, M., "קשׁה" *TDOT* 13:189-195.

검색어

파라오의 완고함, 재앙 내러티브,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 חזק(하자크), כבד(카베드), קשׁה(카샤)

www.kci.go.kr

[ABSTRACT]

On Human Free Will in Light of Pharaoh's Hardness of Heart

Jeong-Heon Kim
Hansei University

Pharaoh's hardness raises a theological problem not onl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free will and God's sovereignty, but also concerning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For this reason, scholarship has long debated the issue. This paper seeks to clarify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Pharaoh's hardness and for the plagues that ensued by means of a lexical study and syntactic analysis of the expressions associated with Pharaoh's hardness.

Whether Pharaoh hardened his own heart (Plagues 1-5) or Yahweh influenced him (Plagues 6-9), repentance remained possible as long as Pharaoh's heart was "strong" (חזק/ḥāzaq) and "heavy" (כבד/kāvēd). Pharaoh could still determine his disposition and actions by an act of free choice. This is illustrated by the responses of Pharaoh's officials and by the conditional clauses set forth by Yahweh. The inclusio formed by קשׁה(qāšâ), however, indicates that once the heart becomes "hardened" (קשׁה/qāšâ), the possibility of reversal is foreclosed, for Yahweh's decisive and final judgment arrives (the tenth plague: the death of the firstborn). Crucially, this outcome is brought about not by Yahweh, but because Pharaoh himself "hardens" (קשׁה/qāšâ) his own heart. Accordingly, the plagues that result from Pharaoh's hardness and from the decisions he

www.kci.go.kr

makes are to be regarded as Pharaoh's own responsibility.

By identifying the קשׁה(qāšâ) inclusio in relation to the plague narrative, this study shows that whereas חזק(ḥāzaq) and כבד(kāvēd) still leave room for human freedom of choice, hvq(qāšâ) allows no opportunity to turn back. It also argues that God influences Pharaoh only through חזק(ḥāzaq) and כבד(kāvēd), not through קשׁה(qāšâ). Moreover, by proposing that Pharaoh's officials function as a foil to Pharaoh in two respects — "heart" and "actions" —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ir role is to underscore Pharaoh's responsibility.

key words

Pharaoh's hardness, Plague narrative, Human free will, Divine sovereignty, חזק(ḥāzaq), כבד(kābēd), קשׁה(qāšâ)

투고일 : 2025년 10월 20일
심사일 : 2025년 12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12월 22일

www.kci.go.kr